

분별하려는 마음을 경계하라

- 대승불교의 주장에 따르면, 識蘊은 팔식으로 나뉜다. 眼識, 耳識, 鼻息, 舌識, 身識, 意識, 末那識, 阿賴耶識이다.
- 末那識은 '나'가 있다고 착각하는 의식으로 아집의 근본이다.
- 阿賴耶識은 '如來藏'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주가 처음 생겨난 그 순간의 의식을 포함해 모든 의식의 씨앗이 그 안에 들어 있고, 모든 선악의 씨앗도 역시 아뢰야식 안에 있다.
- 관자재보살은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의식은 자신의 두뇌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인연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눈은 그저 사물을 보기만 하지만,
새집과 헌집으로 분별하는 순간, 허상에 사로잡힌다.

코는 그저 냄새를 맡기만 하지만,
향기와 악취로 분별하는 순간, 허상에 사로잡힌다.